

피카소·동시대 화가 작품 정읍서 만난다

정읍시립미술관, 20세기 현대미술 거장 작품 특별기획전시 5월 16일까지 전시

정읍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시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 정읍에서 사랑에 빠지다'가 18일 막을 올렸다.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예술을 통한 위로와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 기획전시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20세기 최고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전시로 피카소와 동시대를 살았던 조르주 브라크, 마르크 샤갈, 호안 미로, 장 포트리에, 살바도르 달리 등 20세기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다.

특히, 파블로 피카소의 실제 작품을 정읍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로 회화와 드로잉, 판화, 도자 등 다양한 장르를 이루고 있으며 사진작가 앙드레 벨레르가 촬영한 피카소의 사진작품까지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함께 전시되는 동시대 화가들의 작품들도 화려하고 풍요롭다.

피카소와 함께 입체주의를 창안한 브라크, 색채의 미술사 마르크 샤갈, 초현실주의의 거장 살바도르 달리와 호안 미로, 여성화가 마리 로랑생, 앵포르멜을 대표하는 장 포트리에와 그의 영향을 받은 장 뒤피페, 야수파를 이끌었던 모리스 드 블리팽크, 그리고 무한한 공간의 예술가 루치오 펜타나의 작품까지 이름만으로도 예술 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들을 재해석하는 국내 작가들의 미디어 작품과 AI를 활용한 체험 콘텐츠도 더해지며 더 큰 기대를 모이고 있다.

장승효 작가는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인 브라크의 큐비즘과 달리의 초현실주의를 21세기 관



정읍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시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 정읍에서 사랑에 빠지다'가 18일 막을 올렸다.

점에서 재해석한 영상 작품을 전시한다.

또한 하준수 작가는 AI를 활용해 피카소의 회풍으로 시민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흥미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의 작품 관람은 물론, 혁신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이색적인 체험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전시 관람 시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동선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전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 (063-539-6420 ~ 64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단체이용(관람)과 전시 해설 서비스는

종단 예정이며,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를 분산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정읍시민은 2,000원, 지역 외 거주자는 5,000원이며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시민들과 관람객들이 피카소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담은 작품과 20세기 현대미술 거장들의 예술적 감성을 함께 공감하며 잠시나마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 (063-539-6420 ~ 64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피카소 특별전-전북투어패스 연계 패키지 상품 개발

전북도, 관람권·내장사·카페 이용권 등 구성해 저렴하게 판매

전북도는 정읍시립미술관 기획전시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정읍에서 사랑에 빠지다' 특별전과 전북투어패스 연계상품을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북투어패스는 피카소 특별전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읍 내장사와 주변 카페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했다.

패키지 A(관람권+내장사), B(관람권+카페), C(관람권+내장사+카페)로 구성하고 패키지 A와 B는 6,000원, C는 7,000원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관람객들은 기회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피카소 패키지 상품은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 네이버, 옥션, 위메프, 티몬 등 10여 개의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고, 현장구매도 가능하다.

정읍시립미술관 피카소 특별전은 18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피카소와 20세기 동시대 화가들 작품 25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입체파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유화, 드로잉, 판화, 도자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동시대를 살았던 샤갈, 브라크, 미로, 뒤피페 등의 작품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비대면 관람을 위한 온라인 미술관도 열린다.

/유호상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브런치 콘서트

27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서 다양한 클래식 무대 진행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군산시립교향악단이 27일 오전 11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1 브런치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 되며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시민들과 방역·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군산시립교향악단이 힘 있고 다양한 클래식의 여러 모습을 준비했으며, 백정현 상임지휘자의 지휘와 진행아래, 비르투오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럼펫 '안희찬'이 함께하며 다채로운 무대를 수놓는다.

생상의 축제곡 'Bacchanale'를 시작으로 요한 슈트리우스 2세의 '트리치 트리치 풀카', 그리고 너무나 잘 알려진 곡인 타이스의 '명상곡과 비탈리의 사운드를 바이올린 김재영이 연주하며 이어 최고의 트럼펫 연주자인 안희찬의 연주로 피아졸라의 'Oblivion', 오페라 라보엠의 명곡 'Musetta's Waltz'를 듣게 된다. 끝으로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를 화려하게 변모시킨 현대음악의 거장 쇤베르크의 오케스트라곡으로 연주회를 화사하게 마칠 예정이다.

트럼펫 안희찬은 네덜란드 데테르담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코리안 심포니, KBS교향악단, 이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트럼펫 수석과 추계예술대학교 음악과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2003년, 2005년 동아일보 '한국의 최고 관악기 연주자'로 선정되었고, 프랑스 중국 등 국제 콩쿨의 심사위원을 역임하며 현재 서울 페스티벌 윈드오케스트라, 서울 시민윈드코어이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활동중이며, 코리아 브리스 콰이어 리더, 글로벌 악기 Conn-Selmer International Solo Artist로 활동 중이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은 만 13세에 서울시향과 데뷔무대, 이후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뮌헨 국립음대에서는 크리스토프 포펜사로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김재영은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니, 수원시향 등 국내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지며 명성을 쌓았다. 제9회 대원음악상 신인상,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최우수상, 공연예술경영상에서 올해의 공연예술가상을 수상하며 국내외로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연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층 전체 수용인원의 30%만 오픈하며,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통한 체크인 등 공연장 이용에 따른 기타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한다.

/군산=남현봉 기자

'우리영화만들자' 순창청소년 영화캠프 진행

순창군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순창 청소년 영화캠프를 열고 영화인을 꿈꾸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나섰다. 군은 올해 우리영화만들자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영연)을 통해 여군동 영화감독과 함께하는 '제3회 우리영화만들자 순창청소년 영화캠프'를 오는 27일 까지 진행한다.

영화캠프는 중견 영화감독인 여군동 감독을 비롯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의 혁신 강사진과 전문가들이 수준 높은 영상 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단편영화 제작을 지원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최근 순창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열린 영화캠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영화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했다.

황 군수는 "이번 캠프를 통해 여군동 감독을 비롯한 수준 높은 강사진으로부터 영상에 대

해 많은 교육을 받고 향후 영상 및 관련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순창군에는 기타 관련 예술 분야인 일러스트, 웹툰 등 다양한 예술분야의 교육 기회도 제공되고 있으니 순창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이 꽃피우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캠프는 시나리오, 조명, 녹음, 연출 등 각 분야 전문감독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토대로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와 제작까지 모두 직접해보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최종 결과물은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단편영화를 제작할 예정이며, 제작된 작품들은 3월 중 순창군민들에게 시사회를 통해 선보인다. 이후 다양한 청소년 영화제에도 출품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